

# 시즌 5번째 신예 우승 '신인 돌풍'

태풍 여파 2R 대회로 축소 불가  
버디만 11개... 짜릿한 역전 우승  
"시드 걱정에 손에 피나도록 연습  
첫 우승... 이제 나도 신인왕 경쟁"

태풍 '링링'은 지나갔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신인 돌풍'은 여전히 거세다. 올해 루키들의 짝짝 우승을 앞세워 신선한 바람이 이어가고 있는 KLPGA 투어에서 또 다시 새 얼굴이 등장했다. 5번째 주인공은 박교린(20·휴온스)이다.

### ●시드 걱정뿐이던 박교린

박교린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썬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672야드)에서 열린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6억 원·우승상금 1억2000만 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태풍의 여파로 대회가 3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축소된 가운데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1부투어 시드순위전에서 21위를 차지, 1년짜리 시드를 확보한 박교린은 올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2부투어 5개 대회를 뛰었다. 이유는 하나. 내년 투어 생활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 대회 직전까지 상금 58위(6986만 원)였던 박교린은 60위까지 주저하는 내년도 1부투어 카드를 장담할 수 없었다. 휴식기를 활용해 2부투어로 나가 상금 경쟁을 하며 2020년을 대비했다. KLPGA는 2부투어 정규대회 30% 이상을 뒀던 중 상금 상위 20위까지 이듬해 1부투어 시드를 준다. 박교린은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개막



박교린이 8일 경기도 용인 썬포인트CC에서 끝난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들의 물세례를 받으며 감격해하고 있다. 올 시즌 루키들의 반란이 거센 KLPGA 투어에서 박교린도 당당히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사진제공 | KLPGA

직전이었던 4,5일 2부투어 영광 대회에 출전한 뒤 용인으로 이동해 6일부터 사흘간 대회를 치렀다.

### ●사흘간 노보기+11개 버디

이처럼 녹록치 않은 강행군 속에서

약관의 신예는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뽐내며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1라운드의 버디만 5개를 낚은 박교린은 10번 홀부터 출발한 2라운드에서 첫 5개 홀 동안 1타를 줄였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남은 홀들을 다음

###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최종순위 (파72)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박교린	11언더파 133타	67-66
준우승	조정민	10언더파 134타	66-68
3위	이다연	9언더파 135타	67-68
공동 4위	정연주	8언더파 136타	69-67
	정희원		69-67
공동 6위	안나린		70-67
	김자영2		70-67
	박결	7언더파 137타	67-70
	김우정		69-68
	김수지		69-68
	허다빈		68-69

※ 태풍 영향으로 2라운드로 축소 운영

날 소화해야 했다.

9언더파 단독선두 이다연에게 4타나 뒤져있던 박교린은 8일 재개된 첫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2~3번 홀과 7~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고 단독선두로 올라섰다. 조정민과 정희원 등이 추격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박교린은 "후반 내내 경쟁자들 성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스코어카드를 접수한 뒤에야 '내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우승으로 상금 순위를 24위로 끌어올린 그는 조아연과 이승연, 유해란, 임희정의 뒤를 이어 올 시즌 5번째 신인 우승자가 됐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를 지냈지만 프로에선 동기생들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한 박교린은 "올해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우승 배경을 설명한 뒤 "첫 우승을 한 만큼 이제 신인왕 등극을 목표로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용인 | 곽봉준 기자 shutoul@donga.com



한국 허훈(왼쪽)이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9 FIBA 농구월드컵 순위결정전에서 코트디부아르 디아바테와 볼 경합을 하고 있다. 광저우(중국) | 뉴시스

### 1승 행진 김상식호 '유종의 미'

부상자가 속출한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대표팀은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대회 순위결정전 최종전에서 코트디부아르에 80-71로 승리했다. 라건아가 26점·16리바운드로 중심을 잡았고, 박찬희(14점·6어시스트), 이승현(8점·4리바운드), 허훈(16점·3어시스트)이 힘을 보탰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이대성과 김종규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대표팀은 6일 중국과의 순위결정전에서 이경현마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코트디부아르전을 9명으로 치러야 했다. 하지만 1쿼터를 18-14로 앞섰고, 50-30으로 더 달아나며 2쿼터를 마치는 등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웃었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승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대표팀은 순위결정전에서만 1승을 챙기고 종합전적 1승4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 박상현, JGTO 시즌 첫 승 신고

박상현(36·동아제약)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박상현은 8일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자쿠라 컨트리클럽(파71·7566야드)에서 열린 후지산케이 클래식(총상금 1억1000만 엔·약 12억3000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최호성(46)과 김찬(29·미국)을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JGTO 투어 첫 번째 우승이자 통산 2승을 앞세워 우승상금 2200만 엔(약 2억4000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3승으로 생애 첫 상금왕에 오른 박상현은 올해 JGTO 투어의 첫 번째 한국인 우승자가 됐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린 최호성과 김찬에게 4타 뒤진 공동 3위(9언더파)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박상현은 전반 버디 3개를 잡은 뒤 후반 13~15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역전승을 장식했다. 최호성과 김찬은 각각 이븐파와 1오버파로 부진해 공동 준우승과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고봉준 기자

## 이민영, 토너먼트 여왕으로...JLPGA 시즌 2승

한국선수 2년 연속 '골프5' 정상  
디펜딩 챔피언 신지에는 준우승

이민영(27·한화큐셀)이 2019시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2승째를 따냈다. 5월 호켄노 마도구치 레이디스 우승 이후 4개월만의 경사다.

8일 이바라키현 히다치오미야시 골프 5컨트리클럽 서니필드(파72·6380야드)에서 벌어진 골프5 레이디스 프로골프 토너먼트(총상금 6000만 엔·약 6억7000만 원)



이민영

최종 3라운드에서 12언더파 공동선두로 출발한 이민영은 5개의 버디와 1개의 보기로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해 12언더파로 함께 출발했던 신지애(31·스리본드)와 아시아 사키(일본)를 1타 차로 따돌렸다. 이민영의 우승상금은 1080만 엔(1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기후현에서 벌여졌던 골프5 토너먼트는 신

지애가 고이와이 사쿠라를 연장 끝에 꺾고 우승하는 등 우리 선수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JLPGA 통산 5승째를 기록한 이민영은 호켄노 마도구치 레이디스 우승 이후 3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끝에 다시 정상에 섰다. 시즌 7번째 다승자다. 이번 시즌 JLPGA 투어 다승 순위는 스키즈 아이(일본·4승)~신지애(3승)에 이어 4명의 2승 달성선수가 있다. 이민영은 5번째 2승 선수다. 이민영은 시즌 27번째 대회인 골프5 레이디스 토너먼트 전까지 메르세데스 대상랭킹 3위, 상금랭킹 4위, 평균타수 2위, 톱10 피니시 1위 등의 성적을 기록해왔다.

김종천 전문기자 marco@donga.com

## '10초면 충분했다'...이정영, 고향 대구서 1차방어 성공

"우리나라 페더급 내가 가장 강해"  
바넷은 난타전 끝에 심견오 제압

국내 최대 종합 격투기단체 로드FC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로드FC는 8일 대구체육관에서 굿네몰 로드FC 055 대회를 개최했다. 페더급 챔피언 이정영(24)의 첫 방어전을 비롯해 여러 굵직한 경기가 포진되면서 이날 대구체육관에는 구름관중이 몰렸다. 총 3655명이 입장해 매진을 이뤄 체육관 내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근저 교통까지 마비돼 체육관 앞은 한 때 큰 혼잡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영, 박해진(27) 등 대구 지역 출신 파이터들이 등장할 때는 관중들의 함성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더군다나 이날 메인 이벤트는 이정영과 박해진의 페더급 타이

틀 매치였다. 둘의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이정영과 박해진은 경기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해진은 케이지에 오른 뒤 시종일관 이정영을 노려봤다. 이정영이 손을 내밀며 청한 인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중력만을 높였다. 챔피언 이정영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경기를 준비했다.

결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왔다. 잠깐의 탐색전도 없이 둘은 곧바로 타격전에 돌입했다. 박해진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정영이 오른손 카운터를 안면부에 적중시키면서 박해진이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이정영이 이후 공격을 이어가려 했지만, 의식을 잃은 박해진을 심판이 곧바로 보호하면서 경기가 끝났다. 1라운드 10초, 이정영의 펀치에 의한 KO승이 결정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다.

대구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경기 후 이정영은 "우리나라 페더급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전을 계속 치르며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느꼈을 때 라이트급 도전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둘의 맞대결에 앞서 열린 경기에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다. 정운재(29)와 이형석(32)의 제 1경기에서는 정운재가 1라운드 TKO승을 거뒀고, 제 2경기에서는 홍윤하(30)가 김교린(17)을 리어네이키드초크로 제압했다. 정원희(27)와 난딘에르민(32·몽골)은 제 3경기와 제 4경기에서 각각 예뵤 아바소프(30·러시아)와 홍영기(35)를 1라운드 TKO로 이겼다.

코메이인벤트인 크리스 바넷(33·미국)과 심견오(30)의 경기에서는 바넷이 난타전 끝에 1라운드 TKO승을 챙겼다.



이정영이 8일 대구에서 열린 로드FC 055 페더급 1차 방어전에서 박해진을 1라운드 10초만에 KO로 따돌리고 챔피언 벨트 수성에 성공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로드FC

편집 | 곽창일 기자 ico@donga.com